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6·12 샌토사섬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핵 없는 한반도 또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판문점선언에 명시했다.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을 샌토사섬 공동 성명에 명시했다.

중전 선언은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 협정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키는 외교적 문서이다. 평화 체제는 군사적 대결 상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이행 방안

정치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규범·기구·제도의 총체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행 방안에는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 체제의 목표가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핵화이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여타 사안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 정착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음을 내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가장 신속하고 신뢰가 지켜지는 방식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의 비밀을 추진해야 한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 한국과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셋째,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제 계도를 찾아감으로써 비핵화 협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

이행 방안에는 북미 간 조치, 남북미

간 조치, 남북 관계의 조치 등이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빅딜 구조가 형성됐다. '단계적 동시성 이행 구조'를 가진 가장 신속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순서를 찾아 나가야 한다.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 '행동 대 행동'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북미 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및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으로 선행 조치를 교환한 셈이다. 핵 동결 선언과 중전 선언의 교환이 다음 순위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북미 불가침 협정 및 대북 제재 철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물질·핵시설 등의 폐기와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도 교환도 생각해야 한다.

비핵화 과정에서 평화 체제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위 및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미 협상 구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평화 협정·군비 통제·한미동맹의 변경 등은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평화 협정은 남북이 체결하고 주변국이 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군비 통제 및 축소 문제는 먼저 남북 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 병행론, 평화 협정 당사자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남북 간 이니셔티브로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 협상의 기본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남북 간 협상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다뤄 나가야 한다. 올해 하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중요한 시기이다. 7-8월 북미 후속 협상이 진행되어 적어도 8월 중순경에는 단계적 동시성 이행 로드맵이 발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경우 민간 교류 및 대북 지원 허용, 접경 지역 교류, 북한과의 경제 협력 방안 타진도 요구된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 이슈가 민감하다. 북한에게는 존엄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다. 민감한 이슈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지 않게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나가야 한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가 있기에 발전한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사람은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도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 곁을 한번 스치고 지나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 때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5분 후면 총살 형이 집행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장에서 자신과 함께 사라질 동지들과의 작별 시간으로 2분, 지금까지 28년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대자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1분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하며 아쉬워했습니

시간은 최고의 재판관

다. '이제라도 내가 세상을 더 살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련만...'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 병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와 황제의 특별 감형을 알렸습니다. 그 후 그가 수많은 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특별한 '5분의 시간 체험'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5분은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5분은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시간은 인간이 그어놓은 눈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눈금은 과거를 가리키지도 않고, 미래를 가리키지도 않고 오직 현재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찬스가 왔을 때 골로 결정을 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찬스를 놓치면 꼭 위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늙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는 흥을 돌우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늙어서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명석한 예지로 기회를 잘 포착

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 생김새가 이마에 털이나 있고 뒤통수는 매끈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만났을 때 역센 손아귀로 그 이마의 털을 거머쥐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차! 싶어 놓친 나머지 기회를 잡으려 하면 뒤통수가 매끈해 결코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란 최고의 재판관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이며, 정의라고 불의인지를 시간은 공정하게 판가름해주는 명판사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세상을 보면 기나긴 세월의 판결은 결코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로운 자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가면 서 더욱 뚜렷하게 주목받는 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래 전 읽었던 오 헨리의 '20년 후'라는 소설은 시간에 관한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20년 후 만남 시간과 장소를 정한 친구 두 사

람이 시간이 흘러 그 장소에서 만났을 때, 한 친구는 지명 수배된 범인이었고 한 친구는 그를 잡아야 하는 경관이었고 합니다. 세월의 시간이란 이처럼 인간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보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훗날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초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그 반환점을 돌아 이제 곧 7월을 맞이합니다. 반환점에서 다시금 내가 걸은 길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가야 할 목표점을 다시금 큰 호흡을 내쉬고 용기 내어 한 발 한 발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바로 '기회'이기에 기회를 성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고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국악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일컫는데, 오롯이 한국적 특성을 가진 음악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문화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음악을 수용하여 창조적으로 변용시키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한 동양 음악의 한 갈래로 개념을 지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민간을 중심으로 토착하여 존재해온 향악과 삼국시대 무렵 중국에서 전래한 당악(唐樂),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들어 온 아악(雅樂)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향악은 민간에서 널리 향유하는 음악이었고 당악은 왕실의 조화나 연회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아악은 문묘종묘제례와 등 국가적인 제사 음악에 등장하였다.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면 완결성을 가진 제반 사회 제도적 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의 국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음악 체계가 정비된다. 중국

광주 국악진흥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전망

에서는 유교적 예법에 의거한 음악 정비 작업이 송나라 때 완성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300여 년이 지난 조선 세종 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가적 제도와 법률이 정착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통합하고 모든 구성원간의 상호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기제로 음악이 활용되는 것이다. 음악을 통하여 오례(五禮)로 집약되는 최고 경지의 유교적 질서인 예치(禮治)를 구현하고 완성한다는 것이 이른바 '예악(禮樂)사상'인 것이다.

즉 엄격하면서 경직성을 가진 법률 제도로 인해 매마르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심성을 부드러운데다가 조화로우면서 조화로우면서 지향하는 음악 언어를 통해 가지런히 정제하고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운명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켜 유지하는 신비로운 마력을 가진 것이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하며 풍류 정신을 지배해왔던 전통 음악은 구한말 서양 음악의 급격한 도래와 외세의 국권 침탈 등으로 침체 국면을 좁게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다행스럽게

지난 1970~1980년대에 이르면서 산업화가 초래한 부작용과 외래 문화의 맹목적 추종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으로 따른 우리 고유 문화의 복원 노력에 힘입어 국악 분야에서도 교육 및 창작과 공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국악인들이 마음껏 활동을 전개할 공간은 태부족하고 그들이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제 전통 문화 예술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국악 진흥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너무 절실하다. 더욱이 문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창의성과 더불어 다양성이라 보았을 때, 특정 분야로의 편중된 문화 육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큰 범주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로 나누어본다면, 근대 들어 전통 문화 분야는 지역 사회의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현대 문화에 있어서도 미술 분야에 대한 편중으로 인해 연극, 문학, 출판 등 여타 장르는 적잖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역 문화 토양의 다양성 회복과 확보를 위한 상징성 높은 작업의 일환으로 가장 광주 국악진흥회관의 건립 추진은 나름 중요한 의의를 함축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악진흥회관의 건립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먼저 국악 진흥 활동의 총본산으로써 우리 지역 국악의 교육과 창작 및 공연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마당 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국악 관련 단체의 업무 공간 등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구체적인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간 다소 소외되었던 전통 문화 장르들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성과보다는 국악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집시키는 강력한 구심력을 형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국악인과 뜻 있는 다수 시민들의 숙원인 국악진흥회관 건립의 가시적인 성과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 남도 전통 문화의 융성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악 애호인의 확산과 우리 소리의 생활화 및 대중화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社說

‘통쾌한 반란’ 이룬 태극 전사들 잘 싸웠다

한국과 독일의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태극 전사들이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이나 넣어 전자군단 독일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은데다 추가시간에 터진 '극장골'이라 감동이었다.

기적 같은 승리여서 세계 축구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의 승리 덕분에 16강에 진출한 멕시코는 '탱구 코리아'를 외치며 온 나라가 들썩였다. 외신들은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태극 전사들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큼 잘 싸웠다'는 평가도 절절했다.

사실 경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독일을 꺾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굳이 확률로 따진다면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7.5%라고 했고 16강 진출은 1%의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지어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가능성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태극 전사들이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든 데는 한국 축구의 DNA라 할 수 있는 투혼이 있었다. 볼 점유율은 뒤졌지만 많이 뛰고 골 결정력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태극 전사들이 뒀 거리는 118km로 전자군단보다 3km 더 많았다. 점유율은 30%로 뒤졌지만 죽을 만큼 뛰어 약점을 커버하고 유효 슈팅 다섯 개 중 두 개를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으로 승리를 냈다.

우리 팀은 아시아 팀 중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은 나라가 됐다. 태극 전사들의 투혼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독일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조별 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1938년 프랑스월드컵 1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당시에는 조별 리그 없이 바로 토너먼트를 치렀다.

한국은 독일전 승리라는 '통쾌한 반란'으로 러시아 월드컵을 마감했다. 2패 뒤 1승으로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잘 싸웠다. 다만 앞으로 한국 축구가 선수들의 투혼에만 의지해야 하는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점점할 필요가 있다. 감독이 누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한국 축구만의 색깔을 갖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18 빛의 타워’ 건립 과연 실현성 있을까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518m 높이의 '5·18 광주 빛의 타워' 건립을 추진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혁신위원회는 최근 광주의 상징적 랜드마크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담아 낼 타워 건립을 들고 나왔다.

혁신위에 따르면 타워는 5·18를 상징하는 518m 규모로 짓되 518m지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419m 지점은 4·19 관련 공간을, 315m 지점은 3·15의거 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또 타워 정상에는 빛의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만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그 같은 고층 타워를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과연 민자 유치가 가능한 것인가.

혁신위는 광주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없는 상황에서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5·18을 상징하는 역사적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구도심 일원에 518m 높이의 민주인권탑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논란만 커진 뒤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1980년 5월을 거치면서 광주의 상징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확장하기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 5·18묘지로 굳어졌다. 혁신위는 실현성이 약해 보이는 타워 건립에 나서기보다는 촛불 정부 탄생으로 좋은 기회를 맞게 된 5·18 진상 규명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無等鼓

한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 역사는 골키퍼들의 수난사라 할 수 있다. 본선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1954년 스위스 월드컵. 한국은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 헝가리를 만나 0대9의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당시 골키퍼 황덕영은 '헝가리 푸스카스의 슈팅이 너무 강해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너무 힘들어서 공을 잡으면 관중석으로 차 났다. 그때는 공을 한 개만 가지고 할 때여서 경기장에 다시 공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

이는 선수였다. 그러나 김승규와 김진현을 제치고 스웨덴과 첫 경기에서부터 멕시코전, 독일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골문을 지키며 눈부신 선방을 보여 주었다.

조현우의 롤 모델은 스페인의 데헤아라고 한다. 실제 모션이나 플레이 스타일, 체격 등이 비슷해 '대구FC'의 데헤아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데헤아를 넘어 '레알 골키퍼' 코스타리카의 나바스를 연상케 했다. 그는 당

골키퍼

대 최고의 골키퍼라는 독일 노이어와의 대결은 슈팅을 막아 낸 황덕영은 나름대로 선방

대 최고의 골키퍼라는 독일 노이어와의 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노이어는 김영권에게

해 0대9라는 스코어가 오히려 기적 같은 정도였다. 32년 만에 다시 본선 무대를 밟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는 골키퍼 실수로 맥이 실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이운재가 나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야 골문 싸움에서 안정감을 찾고 첫 승과 함께 4강까지 올랐다.

골을 허용한 뒤 조급한 마음에 공격에 가담했다가 공을 빼앗겼다. 주세종의 퐁패스가 텅 빈 독일 골문을 향하고, 그 공을 힘차게 쫓아가 골을 넣은 손흥민을 보며 5천만 국민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한국 팀에서 골키퍼가 가장 돋보인 대목이다. 조현우 등 번호 23번이 말해 주듯 '남버' 골키퍼였고 사실상 될 기회가 거의 없어 보

16강 진출이라는 1%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1위 독일을 꺾었고 조현우라는 눈부신 보석을 발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가 한국 팀에 있다는 사실을 대회 시작 전까지 솔직히 몰랐다. 미안하다 조현우. /유재관 편집1부장, 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